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6.01)



CONTENTS

• 안다아시아벤처스 현황 보고

1. 파워큐브세미, 코스닥 예심 청구 제출
2. 코트라스 투자 완료
3. 1월 멘토링 협의회

1. 파워큐브세미,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당사가 2022년 10월 스마트안다-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의 재원으로 투자한 전력반도체 전문기업 “파워큐브세미”가 19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증권과 BNK투자증권으로 예상대로 일정 진행 시, 2026년 상반기 말 전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워큐브세미는 2013년 설립 이후 실리콘(Si), 실리콘카바이드(SiC), 산화갈륨(Ga₂O₃) 등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자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성 평가에서도 A등급과 BBB등급을 획득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강태영 파워큐브세미 대표이사는 “이번 예비심사를 계기로 회사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전력·고효율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코트라스 투자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6년 1월 8일 스마트안다-오텍캐리어그린뉴딜펀드, 스타트업코리아센틱스안다전북혁신펀드의 재원으로 코트라스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코트라스는 재활로봇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으로, 하지 재활로봇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3등급 인증과 건강보험 급여 등 재한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재활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스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8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투자를 통해 IRR 159% 이상의 수익 실현이 기대됩니다.

26년 1월 멘토링협의체 세미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기업 및 개인의 대응)

3. 1월 멘토링협의체 세미나

2026년 1월 29일 멘토링협의체는 내일희망경제연구소 김영익 소장님께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기업 및 개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내일희망경제연구소 김영익 소장

주요 경력: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전) 하나증권 부사장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 글로벌 경제: 저성장 구조로의 전환

-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에 의존해 회복했으나, 그 결과 부채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됨
- 부채 조정 국면 진입으로 중장기 저성장 구조 고착화
- AI 혁명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 잠재력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과잉 투자와 수익화 지연 가능성이 병존
- 향후 글로벌 성장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구조 전환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

■ 금융·환율 환경: 달러 약세와 자산 재편

- 미국의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확대는 달러화의 중장기적 약세 압력으로 작용
-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금 및 비달러 자산 비중을 확대 중
-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화 강세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
- 원화는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점진적 안정 가능성 존재

■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

- 한국 경제는 2025년 저성장 국면을 거쳐 2026년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잠재성장률은 1%대에 고착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고 생산성의 중요성이 확대
- 수출 구조는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비중은 축소되고 아세안 비중은 확대
- 산업 전반에서 양적 성장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 중심의 선별적 성장이 진행

■ 기업과 개인의 대응 전략

- 기업은 저성장 환경에서 외형 확대보다 재무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
- 선택과 집중, 기술 경쟁력 강화, 신사업과 기존 사업을 병행하는 양손 경영이 생존의 핵심 조건
- 개인은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을 전제로 근로·업 기반 소득의 중요성을 재인식 필요
- 레버리지 축소와 장기 분산 투자, 절약의 일상화가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대응 전략
-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속도와 규모보다 구조 이해와 생존 전략이 성과를 좌우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략적인 투자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병오년, 고객님의 가정에도 더 큰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 직원 일동